2 월의 양돈관리 포인트

환절기와 돼지

이건 다들 아는 얘기겠지만 겨울이 막바지에 다다르고 봄기운이 고개를 들추려는 시기가 되면 날씨가 자주 변덕을 떨게 된다. 크게 벌어지는 일교차, 차고 건조한 바람, 흐렸다 개었다를 반복하는 하늘… 등등은 내가 기억하고 있는 초봄의 이미지이다. "이 아저씨 봐, 개념 참으로 뻐딱하시네~ 아니 다들 봄! 그러면, 경쾌하게 흐르는 시냇물, 밝고 화사한 산수유, 개나리, 진달래나 겨울잠에서 깨어나 바삐 움직이는 개구리, 약간 거시기 하지만 물이 옴팡지게 오른 봄처녀… 뭐 이런 게 봄이 주는 이미지 아니겠어요? 아주 생명력 넘치고 밝은 이미지 말이요. 근데 아저씬 그렇게 우중충하게 생각하는 것 보니깐 살짝 정신과 치료가 필요한 것 같네요." 뭐 이렇게 날 참으로 한심한 부정적인 인간으로 몰아붙일 사람도 있겠지만 알고 보면 내가 봄에 대해 그런 생각을 하게 된 데에는 다 그럴만한 사정이 있기 때문이다.

나의 봄에 대한 생각이 다분히(사실은 상당히!) 부정적인 이유는 내가 어렸을 적부터 봄이라는 환절기에 겪어야 했던 감기 때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축농증과 비염이 유달리 심했던 나는 특히 봄철이 되면 거의 해마다 감기에 걸리다시피 했었는데 문제는 감기에 걸리면, 남들처럼 대충 약방에서 감기약 하루치 먹고 이불 덮어쓰고 땀 좀 빼면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데 있었다. 열 좀 나고 몸이 오슬오슬 떨리고 기침하는 건 남들만큼 견디겠는데 그 놈의 코에 죽치고 있는 축농증이나 비염이 악화되면 며칠 동안 잠을 제대로 못자는 통에 '감기' 라면 죽기보다 싫었다. 그리고 그 감기가 꼭 봄철이면 찾아오니 댁이 내 입장이라면 봄이 좋겠냐고요~

그런데 사람이 아닌 돼지의 입장이라도 이런 봄과 같은 환절기는 요즈음 애들 표현으로 "재수가 메롱"일 것 같다. 특히 농장 주인을 잘못 만나 영 허접한 돈사에 사육되거나 아니면 돈사 껍데기는 아무리 명품이라도 환기관리가 개념 상실된 돈사에서 살아가야 하는 운 나쁜 돼지들이라면 말이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돈사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로 '외부의 급격한 일기 변화로 야기되는 충격을 충분히 완화시키는 완충역할' 을 꼽는데, 여기서 그 '충격' 이라는 의미는 바로 샛바람이나 일교차 등등의 스트레스를 말함이고 그런 스트레스가 유달리 많은 시기가 환절기로 대변되는 봄이라는 뜻이며, 위에서 말한 허접한 돈사라면 그 충격을 완충하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질

황 윤 재 상무
금오BPC

것이고 특히 일기가 변화무쌍한 봄철에 그곳에 사는 돼지가 무시로 그런 충격에 겪어야 한다면 제대로 커주기는커녕 어지간하면 죽어나가기 십상이라는 말이다.

예를 들어보자. 봄철에 유달리 심한 일교차에 돈사 시설이 나빠서 또는 관리자가 윈치커텐이나 환기팬 관리를 잘못해서 아침저녁으로 돈사 안으로 들어오는 바람이 돼지에게 온도 충격을 주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샛바람이 되는 것이다.(샛바람이 별건가?) 이렇게 샛바람을 맞은 돼지는 그 스트레스로 인해서 몸 안에 면역계가 흔들리게 될 것이고 그 틈에 약해진 방어선을 뚫고 병원체가 돼지 몸을 유린하게 되겠지. 이렇게 기회를 놓치지 않고 튀어나오는 단골 질병들을 우리는 '기회주의적 질병'이라고 부르는데 그중에 우리들의 양돈현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놈을 꼽으라면 '액티노바실러스'라는 세균의 감염으로 생기는 '흉막폐렴'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그 밖에도 연쇄상구균에 의한 자돈의 뇌막염도 그런 치사한 놈들에 속하는데, 한 가지 참으로 답답한 건 어떤 사양가들은 아직도 이런 질병의 원인균들이 평상시에는 자기 농장에 없다가 그야말로 봄, 가을 환절기에 바람타고 온다고 믿고 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세균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그런데 왜 눈에 안 보이는 예수님, 부처님은 믿는 거지?)

그럼 얘네들을 어떻게 처치해야할까? 소독을 주야장창 해야 하나? 최신 항생제로 도배를 해? 백신프로그램을 호화찬란하게 꾸며 봐? 황수의사 그렇게 폼 잡고 술만 퍼먹지 말고 시원하게 얘기 좀 해봐라. 응?…. 그려 그렇게 원하신다면 내 얘기해 보리다.

답은 간단하다. 기회주의적 질병에겐 기회를 주지 않으면 된다. 사기꾼과 친구하며 살아도 그 사기꾼이 내게 사기 칠 빈틈을 주지 않으면 되는 것과 마찬가지 이치이다. 문제는 사양가 여러분이 그 '기회'가 무엇인지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에 문제인 것이다. 바로 스트레스 요인이 그 세균들에겐 절대의 기회인 것이다. 어떤 스트레스? 샛바람, 과환기, 과도한 온도편차, 과밀사육, 과습 또는 과건 등등… 돼지가 편안해 할 수 있는 모든 환경적인 요인들을 벗어난 상태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를 말한다.

가장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은 자기 농장에서 흉막폐렴이 자주 나온다고 흉막폐렴균을 사그리 박멸하려는 태도이다. 사람은 유사 이래로 병원체와 맞짱 떠서 이겨본 적이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그래도 몇 번 이겼다고? 그건 이긴 것이 아니다. 병원체가 잠시 쉬는 것뿐이다. 그대라면 눈에 보이는 않는 적과 싸워서 이길 수 있겠는가?

그러니 그들과 타협하자. 환절기라면 항상 빈발하는 이때만의 일기상의 문제점을 간파해서 미리미리 대비를 하면 그만이다. 몰라서 늘상 당한다면 그 분야의 전문가에게 돈 좀 써도 농장 경영에 문제 생기지 않는다. 제대로 된 전문가를 구하는 게 어려워서 그렇지.

세상을 몇 십 년 살았다면 환절기를 '나이 2'번 겪었다는 얘기가 된다. 그러니 그렇게 당하고도 아직도 모르겠다면 똥인지 된장인지 수 십 번 먹어봐도 모르겠다는 말과 똑같다. 파랑새를 멀리서 잡으려고 하지 마라. 바로 여러분 어깨에 앉아 있다. 양돈